

코스피, 지난달 3.92% 떨어져...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기록

美 대통령 선거 이후 증시 상승세 이달 산타렐리 기대감... 투심 자극 국내증시, 트럼프 리스크에 변동성 ↑ 韓 경기 내년 2분기에 저점도달 전망 골드만삭스, 韓 투자 '중립'으로 하향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하락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8.76포인트(1.95%) 내린 2455.91에, 코스닥지수는 16.20포인트(2.33%) 내린 678.19에 장을 마쳤다. /뉴시스

지난달 코스피가 약 4% 하락한 것과 상반되게 뉴욕 3대 지수들은 5%대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산타렐리', '연말렐리'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편이지만 국내 증시는 연말 이벤트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는 3.92% 하락했다. 반면, 뉴욕 주요 지수들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상승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1월 2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4910.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032.38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다. 두 지수는 11월에 각각 7.53%, 5.73%씩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1월 한 달 동안에만 6.20%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펼쳐졌던 미국 증시 내 상승 랠리가 12월에는 산타 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하

지만 국내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연말 랠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12월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리밸런싱 수급이 아니라 한국 경기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오른 경우는 2016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등 다섯 번이다. 이 중 네 번은 연중 오르다가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고, 2021년은 11월까지 연중 수익률이 -1.2%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11월까지 코스피의 연중 수익률은 -7.5% 수준으로 매우 낮다.

박 연구원은 "한국 경기가 내년 2분기 경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가 착륙하기까지 2025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년부터 2019년과 2022년에서 2023년, 앞선 두 번의 하락 사이클에서 코스피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는 6%까지 하향 조정됐다는 부연이다. 지난 두 번의 경우처럼 6%까지 하향될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컨센서스가 8% 언저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글로벌 투자은행(IB) 골

드만삭스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상장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글로벌 변수 등이 코스피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거시 경제가 달러 강세와 관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 둔화가 전망된다"고 짚었다.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주주 제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주식의 재평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도전적인 거시 경제 환경에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당국의 높은 인식으로 일반 주주를 위한 주식시장 환경은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 단계... "年 영업익 2兆 기대"

metro 관심종목 대한항공

EU 집행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받아 지난 한달 동안 주가 10% 가량 올라 韓 유일 대형항공사... 시장 지배력 ↑



대한항공 기체 모습 /대한항공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으로 양사의 인수·합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항공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2만5950원을 기록한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난 한달 동안 10% 가까이 상

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40%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대한항공의 주가 오름세는 지지부진했던 시장 상황까지 이겨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

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간 가장 다진 결과다. EU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14개 '필수 신고국(경쟁 당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따냈다. 업계에서는 EU의 최종 승인으로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한국 유일의 대형 항공사(FSC·풀서비스캐리어)가 되며 시장지배력이 커질 전망이다.

합병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자본시장에서도 대한항공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항공 시장 재편 결과를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높이는 증권사들도 나왔다. 하나증권은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기존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몇 년간의 영업환경은 FSC(대형항공사)

에 긍정적"이라며 "원거리 노선의 경쟁 강도가 완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유가·금리도 하향안정화함에 따라 대한항공은 연간 영업이익 2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추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아시아나 지분 64%를 인수할 예정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합 대한항공의 경우 노선 확대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 확대, 운영 기재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재 주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0.9배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대형 항공사 평균치인 1.3배 대비 저평가 국면"이라며 "인수 효과에 따른 연결 실적 증가와 프리미엄 노선 수요 증가에 따른 여객 운임 강세가 이어지며 밸류에이션 격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학개미, '가상화폐' 강세에 투자 열풍

지난주 최대 순매수 종목 TOP 5 중 가상화폐 4개 차지... 2위에 테슬라

2024년의 마지막 달에 접어든 시점에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대세'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달 동안만 38%나 급등하며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끌어 올렸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한주(22~29일) 동안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티렉스 2X 롱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데일리 타겟 상장지수펀드(ETF)'로, 총 1억 1670만 달러(약 1629억원)를 사들였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빛을 내서 비

트코인 투자에 집중한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비트코인 38만 6700개(약 365억 2786만 달러·51조원)를 보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공동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에도 5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으며,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보유 비트코인 평가액이 54억 달러(약 7조 5897억원)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자본시장에서도 코인 관련 종목의 매수세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서학개미가 많이 매수한 주식 순위 3위부터 5위 역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일일 주가 변동률을 1.75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마이크로



/유토이미지

스트레티지 ▲이더리움의 일일 성과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등이 해당된다. 서학개미가 이들 세 종목에서 순매수한 총액은 2억 700만 달러(약 3853억 원)에 달했다.

연말 미국증시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도 선물 시장에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

순매수 상위 5위에서 유일하게 가상화폐와 관련 없는 종목은 테슬라였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는 테슬라 주식 1억 1607만 달러(약 1621억원)를 순매수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스팸문자 사기 차단방안 정교화

스팸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키워드 선정

최근 불법업자가 발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 사기 관련 스팸 문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 스팸문자 차단 방안을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1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SKT·KT·LG+)는 스팸문자로 인한 금융투자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차단 방안을 정교화한다고 밝혔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지난달 기준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 약 20%가 추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 스팸 발신번호를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이 일괄 차단되도록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 적

용 범위를 다음달 16일부터 투자 유인 스팸문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 문자 약 2만여 개를 분석해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문자의 발신번호는 6개월간 대량 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아울러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를 통한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도 이뤄진다.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분석해 추려낸 핵심 키워드를 각 이동통신사 분석·차단 시스템에 추가 반영해 정교하게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스팸 문자에 따른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 결과 투자 유인 유형 스팸 문자 약 20%를 추가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허정윤 기자